

2006 푸른숲선도원 여러분은 우리나라 숲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

푸른숲선도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2006년을 맞이하여 보람찬 한 해 계획을
잘 세우셨나요?

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면서 숲속의 씨앗도
하나 들씩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.

삶을 풍요롭게 하는 푸른숲은 우리의
미래이자 희망입니다.

미래와 희망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가꾸어
나가면 현실이 되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.

올 한해에도 푸른숲선도원들이 우리나라
숲 지킴이로서, 푸른숲을 가꾸고 지키는 데
앞장서길 바랍니다.

숲과 함께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푸른숲선도원의
멋진 한 해를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.